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9

기독교 윤리의 절충적 모델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기독교 윤리의 절충주의적 모델입니다.

좋아요, 기독교 윤리의 주요 철학적 및 신학적 이론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므로, 질문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견해는 이러한 이론 중 많은 것의 통찰력을 긍정하는 일종의 절충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절충주의 모델을 나타내는 그래픽으로, 특히 공리주의, 칸트 윤리, 미덕 윤리의 통찰력을 확증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특정한 도덕적, 이론적 전통에서 얻은 도덕 이론 또는 통찰력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모든 기독교 윤리에서 확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려 중 하나는 특히 우리가 수행하는 행동의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결과에 관련된 유용성과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의무, 의무론적 구성 요소, 의무, 정의, 권리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용기, 관대함, 인내, 친절, 자제와 같은 성격적 특성을 지칭하는 덕은 사도 바울이 영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윤리 영역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봅니다.

구약성서 판례법에서 신약성서까지,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복적인 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담이 말했듯이, 그러한 행동의 유용성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우리 행동의 결과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론적 관심사, 성경의 많은 규칙과 명령, 권리, 정의, 의무에 대한 많은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성경에서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덕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덕행을 행하라는 많은 지지와 권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영의 열매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또한 성경에서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완전한 도덕 이론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격에서 성취되거나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은 그가 한 모든 일이, 그의 행동과 말의 결과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선을 극대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미덕, 모든 영의 열매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거나 부를 수 있는 모든 도덕 이론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고려 사항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모든 이론은 기본적으로 단축된 기독교 윤리, 불완전한 기독교 윤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속 철학자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요 도덕 이론의 모든 통찰력을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으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연히도, 이 이론들의 주요 지지자들은 모두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의 경우, 그리고 존 해리스가 주장한 것처럼,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 없이는 윤리를 올바르게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성의 가능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분명 칸트였습니다. 신, 자유, 불멸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자가 없고, 도덕법에 따라 우리를 책임지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불멸이 없다면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질 생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면 도덕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칸트에게 신은 도덕성의 가능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종의 유신론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인과성, 특히 목적론적 원인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는, 그의 윤리가 궁극적으로 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 그래픽이 있고,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데, 단검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시키셨고 모든 도덕적 진실을 구현하셨다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선의 본질에 대한 제 절충적 분석입니다. 우리는 또한 윤리적 지식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절충적 접근 방식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윤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의 도덕적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우티프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보았듯이, 신의 본성은 도덕적 진실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떻게 자신의 도덕적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그는 어떻게 도덕적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하시나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자연법 윤리와 신의 명령 윤리의 통찰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은 자연법, 즉 우리가 자연과 우리 자신의 몸에서 읽을 수 있는 1차적이고 2차적인 교훈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 특히 구약과 신약의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저는 더 나아가 자연법은 신이 자연의 구조에 짜넣은 자연적 처방을 통해 유용성에 대한 진실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고 의무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자연적 감각이나 인식, 즉 그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divinitatis . 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법적 감정과 양심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 와 의무,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셋째 , 미덕의 영역, 우리가 존경하는 성격적 특성을 통해 우리는 관대하고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더 매력적이고,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발견합니다.

께서 자연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도덕적 의지를 알려 주신 일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가 그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 되는 방식에 관해서 ,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덕적 진리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은 다양한 형태를 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적 작품, 시적 작품, 묵시적 작품, 예언적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텍스트에서 많은 문학적 형태를 발견합니다 . 서사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어떤 종류의 결과, 선과 악,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낳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발견하는데, 이는 도덕적 유용성에 대한 통찰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이 모든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무와 권리와 같은 의무론적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인물 초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개인과 그들의 성격적 특성을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미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상당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나 모세, 엘리야, 특히 예수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한다면. 어두운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만과 모세를 반대했던 이집트 파라오

유다 이스카리옷,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같은 온갖 사악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연구함으로써 악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적 계시의 세 가지 차원은 유용성, 의무, 미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절충주의적 모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9, 기독교 윤리의 절충주의적 모델입니다.